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미국 간 아들이 십 년 만에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 아들이 낯선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고 배리를 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새삼 애틀하면서도 대견하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지양분을 취하고 떼어 가지만 그럼에도 애틀하고 안쓰러워지는 것은 피의 이질감 탓이다. 가족은 서로에게 어둠 속의 검은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족이란 보호색 안에 있을 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족 울타리 밖으로 사라진 뒤 그의 존재감은 또렷해진다.

우리는 가족이란 역사 안에서 자리하는 상처다. 그럼에도 가족을 향한 정이 애틀하고 떨어지면 서로를 그리워한다.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누린 안락과 보람과 기쁨들의 요람이고, 추억이란 상징 자본이 가족 내부에서 빛어낸 것이기 때문이리라. 가족은 선물로 주어진 생명을 학적 소우주, 처음 만나는 사회 집단, 험한 날씨와 질병을, 그리고 작은 외부의 악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우연히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

가족이란 이름으로

난 미셀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를 읽으며 가족의 의미를 곰곰 되새겨 본 적이 있다. H마트는 미국 내 한국인이 드나드는 한식 식재료를 파는 식료품점이다. 한국 라면, 설렁탕, 미역국, 붉은 고춧가루, 떡볶이, 어묵, 그리고 멸치 액젓, 마늘, 생강 같은 기본 재료들을 판다.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자란 '나'의 식성은 완전한 한국적이다. 모녀는 생김 건 다르지만 한식이라는 정서적 땃줄로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

'나'는 딸에게 결코 '호밀밭의 파수꾼'을 권하거나 롤링 스톤스 레코드판을 권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 어머니는 한식을 사랑하고 그걸 만들어 가족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동맹체, 입맛과 취향으로 결속하는 공동체다. 한국인 어머니를 잃은 뒤 '나'는 상실에 따른 그리움을 앓는다. 어머니가 생시에 즐겼던 음식이 그를 향한 추억과 그리움의 그나 풀이 된다. 어머니는 '나'에게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애하지 말라고 주야장천 이른다. "너한테서 항상 김치 냄새가 날 거야. 그 냄새가 네 땀구멍으로 배어나올 테니까"라고.

향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한국과 연결된 끈이 뒤틀어 끊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술과 담배와 노름'을 좋아하는 할머니와 찜질방을 즐겨 찾는 이모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한국 풍습과 문화를 그리워한다. '나'는 그때마다 김치를 담그거나 한식을 만들어 먹는다. 'H마트에서 울다'는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애도를 담은 책이자 자기 안에 인 박인

입맛과 문화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책이다. 그 내용이 절절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울고 싶을 만큼 애통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느낌이다.

가족은 백악기의 암석들로 이루어진 달과 다르다. 가족이란 피의 기질과 본성을 공유하고 서로 닮은 식성과 육구를 가진 존재로 산다. 그런 바탕에서 나를 당당하게 호명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일에 집착한다.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물어뜯는다. 오죽하면 아무도 안 볼 땐 어떤가에 갔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했을까. 많은 이들에게 가족은 살아야 할 목적이자 동력인 동시에 내다 버리고 싶은 만큼 성장신 집이다.

인류학적으로 가족은 유전자와 삶의 기억에서 하나가 되는 혈연 공동체다. 우리는 가족 내부에서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 들고, 공동으로 슬픔과 기쁨을 겪으며 성장한다. 우리는 그런 가족 안에서 자리면서 자아를 빛은 존재들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구속한다. 이 구속이 늘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 주는 것은 아니다. 더러는 구속에 진절머리를 치며 벗어나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 탈출하는 것은 어른이 된 뒤의 일이다. 자식들은 노인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와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새 가족을 꾸린다. 그러나 새 가족도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엔 또 동지로 남는다. 가족의 결속력과 의미가 예전보다 퇴색했지만 가족이란 여전히 생성과 의미를 반복하며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떠받치는 토대인 것이다.

종교칼럼

명 때리기, 검색, 사색 그리고 묵상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이 없는 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오랫동안 한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던 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재현 교수도 "명 때리기의 효과는 동물 실험이나 이미징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명 때리기 보다는 좋은 사색이 뇌와 감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10월 15일 카카오가 멈췄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는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격정도 되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과장되게 표현한 말은 카카오가 멈추니 대한민국이 멈췄다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기간 통신망'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다. 나에게도 불편했던 것이 있었는데 상대방과 연락한다든가 결제와 금융 등의 문제보다도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가 급변 사고 회사와 연관이 있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하루에 얼마나 검색 기능을 사용할까 생각해 보니 아주 많은 것들을 검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하면서 죄다 검색창을 열고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배달 주문, 중고 거래,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도, 음악을 듣기 위해서도 어플을 열고 검색을 해 보는 게 습

관처럼 되어 버렸다. 일단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 사이트를 클릭하고 본다. 유용한 정보를 잘 찾아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힘들 때도 있다.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아 내는 것도 또한 일이 되었다.

핸드폰이 편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화번호를 외우는 일이 거의 없어졌듯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머리 속에 저장된 정보들을 끄집어 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만큼 숙고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색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한 다르게 생각하는 힘도 길러준다. 생각들을 디자인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하며 예술 작품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어떤 것들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검색을 통해 많은 목사들의 설교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다. 평가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자신에게 묻고 그 답을 얻어 '됨'과 '행함'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겠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분수에 지나칠 때가 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기고

갈치



이중섭 소설가

에서 잡은 것은 팔고 남은 것은 아이스박스에 담아올 수 있답니다."

낙시를 좋아하는 K형이 지금 당장 알아보고 재촉했다. 그 동생이 풍남항에 배를 가지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전화했다. 두 사람은 한참 얘기를 주고받았다. 얘기를 끝낸 동생이 조금 시무룩한 표정으로 선주의 얘기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보름달이 뜨는 만월이면 갈치가 입질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모두가 의아해 했다. 우리 마을은 바다가 가깝지만, 농사만 지어서 물때나 갯것들의 습성을 잘 몰랐다. 갈치가 어떻게 만월인지 알까. 만월이라도 오늘 밤처럼 구름이 끼거나 비 오는 달밤이면 혹 입질하지 않을까. 그런 날은 갈치도 갯갈치 않을까 싶었다. 전화한 동생도 그런 생각이 들어 친구인 선주에게 물어보았다. 선주는 웃으면서 동생에게 말했다.

"그건 사람 생각이고……. 바다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네."

무언가 부끄러운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얼굴을 확 달아오르게 했다. 너희 인간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는 듯 들렸다. 그 동생은 선주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갈치는 심해이라 바닷물이 많은 만조 때는 바닷속 깊어 있기에 잡기가 힘들다. 물이 빠진 간조 때에 많이 잡힌다고 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바닷물이 많은 만조라 당연히 갈치잡이 배가 거의 나가지 않는다. 술도 마셨겠다, 방금 그런 이야기도 들었겠다, 다들 갈치에 대해 아는 것들을 늘어놓았다. 선주의 말을 전한 그 동

생은 자기가 아는 갈치에 대해 더 얘기하기 시작했다. 갈치가 서서 헤엄을 칠 때는 꼬리지느러미가 없어 등지느러미로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서서 움직이기에 입어(立魚)라 불린다. 마치 긴 칼들이 늘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동생은 갈치 새끼인 풀치로 호박 찌개를 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 입맛을 다셨다. 밤내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들 내일 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오는 길에 올라다본 하늘에는 푸른 달이 퍼렇게 떠 있었다. 달 속에 투병 중인 선배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려 했지만 쉬 잠이 오지 않았다. 어릴 때 추운 겨울날 아침마다 울리던 선배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갈치 사려! 맛있는 갈치 사려!" 교과서에 실린 '북청 물장수'의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선배의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다. 아침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갈치를 팔았다. 갈치 사려, 하는 소리가 아스라이 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마을 뒤 송넛가에 나가 보았다. 송넛는 어릴 때 개 밧고 놀던 그 하천이 아니었다. 냇가 둑은 그대로인데 바닷물이 드나들던 기수 지역은 간척공사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흐르는 물이 모여 있는 깊은 곳에 흑 썩알 굵은 봉어가 있다 내려가 보았다. 봉어는 보이지 않고 물가에서 뱀 한 마리가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다. 풀치만 한 뱀이 너희들 인간 따위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느릿느릿 물속에서 노닥이며 내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社說

문화전당 '미디어월' 창의적 보존 방안 마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이자 콘텐츠 홍보 플랫폼인 '미디어월'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의 옛 모습을 온전히 살려야 한다는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취지에 따라 미디어월이 철거될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역 사회 일각에서 전당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미디어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그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개최한 시민사회 집담회에는 각계 단체들이 참여해 미디어월의 향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흥성칠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2020년까지는 항쟁 흔적 사장 우려 때문에 철거 입장이 명확했지만 이후 전당과 간담회 등을 통해 미디어월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임성환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장은 "미디어월 철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복원의 방향성도 살리고 전당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월은 지난 2017년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당의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이다. 특히 전당의 건물이 모두 지하에 들어왔던 단점을 보완하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광주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실제로 광주 도시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상을 통해 전당의 '존재'를 부각시킨 일등공신이었다. 주말이면 미디어월에서 상영하는 오일 콘텐츠 등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붐비 만큼 인기가 높다.

물론 미디어월이 무조건 현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문화전당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으로 각인된 만큼 창의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같은 일 다른 처우' 개선 서둘러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소관 부처와 시설 유형,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서로 다르고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처우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여성 가족부 소관 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월급은 보건복지부 지원 시설에 비해 8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적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센터장 직급(10호봉 기준)은 2500만 원, 생활지도원(5호봉)은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격차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 급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그렇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나 아동 그룹홈 등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들은 사회복지사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에 지

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 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69.4%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의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 그룹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종사자 간 임금 차별을 없앨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광주시 등 각 지자체도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임금 격차도 여전히 큰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에서 차별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들이 수년 전부터 임금 체계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와 광주시는 처우 개선의 핵심인 보수 체계 일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대로부터 모든 나라는 국가 방위를 위한 군대를 조직했으며, 이를 위해 나름의 징병 제도를 운영했다. 국가별·시대별 차이는 있지만 징병의 방법은 대가를 지불하고 군사로 고용하거나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등 크게 두가지였다. 대표적으로 고대 중국은 백성들에게 경작할 토지를 주고 군사로 고용했으며, 제정 러시아는 농노에게 20년이나 25년간 의무 복무케 했다.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진 현대 징병 제도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대혁명(1789년) 이후 봉건제가 무너진 프랑스는 왕정 체

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1만 5000여 명이 전사하는 등 사실상 패전하고 만다. 당시 미국은 매월 4만 명씩 징병을 한 탓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분위기가 확산됐다. 수많은 청년들이 캐나나나 영국으로 도피하는 등 병역을 기피했다. 이같이 베트남 전쟁 기간 징병을 회피해 기소된 사람만 21만 명에 달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 사회는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러시아가 징집 명령을 내렸

징집 기피

지만 모집이 용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을 이탈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카자흐스탄에만 20만 명이 가까운 러시아인이 몰려들었고, EU로 넘어간 숫자도 6만 명이 넘는 등 최소 30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 북군에서 먼저 의무 징병제를 실시, 20~45세 남성을 징집했다. 미국은 1·2차 세계대전 동안 징집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병력을 보유했다. 이후 미국이 대규모 징병을 실시한 시기는 베트남 전쟁 때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계기로 징병을 통해 185만 명까지 병력을 확장한

침략에 대한 역사적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고 청년들까지 징집을 피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치르는 전쟁은 일찍이 베트남전의 미국 경우에서 보듯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Table with 4 columns: Office/Department, Name, Position, and Contact Info. Includes details for the newspaper's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